

이슈브리프 889호
(2026. 9. 7)

대만 국방부 『2026년 중국군사력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제889호

박병광 bkpark@inss.re.kr



국문초록

대만 국방부의 『2026년 중국군사력 보고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변화를 단순한 무기 체계의 양적·질적 증강이 아니라 전쟁 수행체계와 방식 자체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중국은 국방비 확대를 바탕으로 육해공군과 로켓군의 전력을 현대화하는 동시에 AI·무인체계, 우주사이버·전자전, C4ISR 및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상호 결합하여 합동작전과 다영역 작전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군사기술의 발전을 개별 전력의 성능 향상에 그치지 않고 정보지휘통제·정찰·전자전·타격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된 전쟁체계의 구축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만 위협 역시 단순한 상륙침공의 관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평가한다. 중국은 군사훈련과 해경 활동, 법률전·인지전·사이버 및 전자전 등을 상호 결합하여 평시부터 대만의 대응능력을 시험하고 소모시키는 한편, 필요할 경우 이를 군사적 강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만에 대한 작전은 회색지대 강압→정보·사이버·전자전→봉쇄·격리→정밀타격→상륙작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대만 주변 해·공역을 통제하고 외부 지원세력의 개입을 차단하는 봉쇄·격리 능력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보고서는 시진핑의 군 장악력 강화와 군 고위급 숙청을 중국군의 중요한 변화로 지적한다. 강력한 정치적 통제는 군에 대한 충성도와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지나친 숙청과 정치화는 지휘관의 독립적 판단과 정확한 정보보고를 위축시켜 전쟁 수행능력의 잠재적 취약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군의 군사력은 무기체계의 수량뿐 아니라 지휘통제체계와 정치적 통제, 합동작전능력 및 실제 전쟁 수행 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은 중국군을 평가할 때 전투기·함정·미사일의 규모뿐 아니라 합동작전, C4ISR, 우주·사이버·전자전, 무인체계, 민군융합, 준군사력 활용 및 전쟁 전환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자체에만 주목하기보다 평시의 회색지대 강압에서 봉쇄·격리와 제한적 군사작전, 전면전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위협 양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대중국 안보정책 역시 중국의 단순한 '군사력 증강'보다 '전쟁 전환능력'과 '복합적 강압능력'의 발전에 주목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위기관리와 정보·감시·정찰, 사이버·우주 분야의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대만국방부, 중국군사력보고서, 양안관계, 중국인민해방군, 대만해협위기

대만 국방부는 최근 『2026년 중국군사력 보고서(115年中共軍力報告書)』를 발표했다. 총 28쪽으로 구성된 이 보고서는 중국군의 변화와 대만에 대한 위협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물론 대만 국방부의 위협 인식과 국방정책을 반영한 자료라는 점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 보고서는 미국 국방부가 매년 발간하는 『중국군사력 보고서(China Military Power Report)』와 함께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력 발전과 작전개념, 대만에 대한 전략적 의도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 글에서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군의 변화가 갖는 전략적 함의와 한국의 안보 및 대중국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종합 평가

대만 국방부가 발간한 『중국군사력 보고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력 발전을 단순한 무기체계의 현대화 차원이 아니라 전쟁 수행체계 전반의 지능화·무인화·통합화 과정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전투기와 함정, 미사일 등 전통적 군사력의 양적·질적 증강과 함께 인공지능, 무인체계, 우주·사이버·전자전, 정밀타격 및 지휘통제체계의 발전을 추진하면서 개별 군종의 전력 강화보다 다양한 전력을 하나의 체계로 결합하는 능력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력 현대화의 궁극적인 방향은 대만해협을 중심으로 한 봉쇄와 격리, 정밀 타격, 상륙작전 능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유사시 미국 등 외부세력의 개입을 억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적극적 방어(積極防禦)’ 전략만으로 중국군의 실제 군사활동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군은 최근 제1도련선을 넘어서는 해·공군 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장거리 정밀타격과 원거리 작전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군의 전략적 행동은 전통적인 영토방어의 범위를 넘어 주변 해역과 공역에서 상대방의 군사활동을 억제하고 필요한 경우 국지적인 봉쇄와 격리, 타격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전면적인 무력침공에 한정하지 않는다. 중국은 회색지대 활동과 법률전, 인지전, 사이버전, 전자전 등을 활용하면서 해경과 해상민병 등 준군사적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으며, 이를 전통적인 군사력과 결합하는 복합적인 강압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평가이다. 따라서 중국의 대만 전략은 ‘언제 침공할 것인가’라는 문제만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평시의 압박과 군사적 강압을 통해 상대방의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소모시키고, 필요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군사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 군사력 현대화의 핵심: 정보화에서 지능화·무인화로

보고서가 제시하는 중국군 현대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군사력 발전의 중심축이 기존의 정보화를 넘어 지능화와 무인화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인공지능, 양자기술, 무인체계, 극초음속 무기, 우주전력, 사이버전과 전자전, CAISR, 위성통신 및 정찰체계, 유·무인 복합체계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군이 더 많은 전투기와 함정을 보유하는 것 자체보다 다양한 무기체계와 정보체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센서가 수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휘 통제체계에 전달하고, 이를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처리한 뒤 적절한 타격수단으로 연결하는 체계대항 및 체계전 수행능력이 중국군 현대화의 핵심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군의 군사력을 평가할 때 개별 무기체계의 숫자와 성능만을 비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중국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위성, 무인체계, 사이버·전자전 능력을 어떻게 통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지휘·통제·통신·정보체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는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이는 향후 전쟁에서 전통적인 화력의 우위보다 정보 우위와 지휘통제 우위, 그리고 이를 신속하게 물리적 타격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주·사이버·전자전의 전략적 중요성 증대

보고서는 중국군 현대화에서 우주·사이버·전자전이 더 이상 전통적인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보조적 영역에 머물지 않고 독립적인 전투영역이자 현대전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국은 베이더우 위성항법체계를 비롯하여 정찰위성, 통신위성 및 상업위성을 활용해 전장에 대한 감시·정찰 및 정보지원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우주상황인식과 반우주 능력을 발전시킴으로써 유사시 상대방의 위성체계와 우주기반 정보지원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수단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사이버전 영역에서도 중국은 상대방의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정보체계를 교란하거나 주요 기반시설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전자전 분야에서는 평시부터 전자정보를 수집하고 전파를 방해하는 활동을 수행하면서 전시에는 이를 미사일과 항공 전력 등 물리적 타격수단과 결합하는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결국 중국군이 추구하는 미래전의 기본적인 방향은 먼저 상대방의 정보·통신·지휘체계를 약화시키고, 그 이후 미사일과 공군·해군 등의 물리적 타격을 통해 전장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미래전에서 “누가 먼저 상대방의 눈과 귀를 차단하고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가”가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군 훈련의 변화: 실전훈련에서 전쟁 전환능력으로

보고서는 중국군의 군사훈련 역시 단순한 전력 과시를 넘어 실제 전쟁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 중국군은 기초 훈련과 합성훈련, 연합훈련을 연결하는 훈련체계를 발전시키면서 개별 군종의 숙련도보다는 여러 군종과 전투체계가 하나의 작전목표를 수행하는 합동작전능력을 중시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러난 무인기의 대규모 활용과 전자전, 대드론전, 정밀타격, 탄약 소모 및 후방지원 문제 등을 중국군의 훈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중동지역의 분쟁에서 나타난 대규모 탄약 소모와 방공체계의 부담 역시 중국군이 현대전의 주요 교훈으로 주목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중국군의 최근 훈련은 단순히 특정 무기체계의 운용능력을 점검하는 차원을 넘어 실제 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상황을 사전에 실험하고, 평시의 군사활동을 유사시 실제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 전면침공을 넘어선 복합적 강압

대만 국방부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중국의 대만 위협을 전면적인 상륙침공이라는 하나의 시나리오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은 상황과 목적에 따라 회색지대 활동, 법률전, 인지전, 사이버전, 전자전, 군사적 압박, 해·공 봉쇄 및 격리, 합동 화력타격,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륙작전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군의 군사적 행동은 평시와 전시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이 평시부터 대만 주변에서 군용기와 함정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해경과 해상민병 등 준군사조직을 활용하면서 대만의 대응능력을 시험하고 소모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만의 군사적·정치적 저항능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만 전략은 단순한 ‘침공전략’보다는 군사력과

비군사적 수단을 결합하여 상대방의 선택지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는
강압적 현상변경 전략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중국의 대만 작전개념: 봉쇄·타격·상륙의 연계

대만 국방부 보고서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중국군이 대만에 대한 군사작전을 봉쇄와 타격, 상륙이라는 각각의 독립된 작전으로 보기보다 상호 연계된 하나의 작전체계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군은 해·공 봉쇄 및 격리, 합동 화력타격, 제해권·제공권 확보, 연합 상륙작전 등을 다양한 상황에 따라 선택하거나 단계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작전개념에서 상륙작전은 반드시 최초의 군사행동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정보·사이버·전자전 등을 통해 대만의 지휘통제체계를 약화시키고, 미사일과 공군을 활용하여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한 뒤, 해·공군력을 이용하여 대만을 봉쇄하고 외부 지원을 차단하는 과정이 선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후 대만의 군사적 저항능력이 충분히 약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상륙작전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중국군의 대만 작전개념은 정보·사이버·전자전 → 지휘통제체계 교란 → 장거리 정밀타격 → 해·공 봉쇄 및 외부 개입 차단 → 상륙작전으로 연결되는 복합적인 작전구조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만의 방어전략 역시 단순히 상륙저지능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전쟁 초기 단계에서 지휘통제체계와 통신망, 정보자산 및 핵심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능력을 함께 강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보고서의 주요 특징

양적 군사력보다 전쟁방식의 변화를 중시 : 이번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국군의 전력증강을 단순히 전투기와 함정, 미사일 등의 수량 증가로 평가하지 않고 전쟁 수행방식 자체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분석

하고 있다는 점이다. AI와 무인체계, 우주·사이버·전자전, CAISR을 서로 분리된 분야가 아니라 하나의 전쟁체계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플랫폼 중심 군사력 평가와 차별성을 보인다.

평시와 전시를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평가 : 보고서는 중국군의 군사 훈련과 해경 활동, 법률전, 인지전, 사이버 활동 등을 각각 별개의 현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전략적 연속선상에서 평가한다. 이는 중국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만 군사적 강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시부터 상대방의 대응능력을 약화시키고 전략적 우위를 축적하려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전면침공보다 봉쇄와 격리 가능성에 주목 : 보고서는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반드시 처음부터 대규모 상륙작전을 선택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봉쇄와 격리, 정밀타격, 외부 지원 차단 등을 통해 대만의 정치적·군사적 저항능력을 약화시키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작전 옵션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대만해협 위기를 분석할 때 ‘침공 여부’뿐 아니라 봉쇄와 격리가 실제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함께 검토해야 함을 의미한다.

군 내부의 정치적 통제를 군사적 취약성과 연결 : 보고서는 시진핑의 군 장악력 강화와 군 내부 숙청을 단순히 정치적 현상으로만 다루지 않고 실제 전쟁 수행능력과 연결하여 평가한다. 즉 강력한 정치적 통제가 군의 충성도와 조직 장악력을 높일 수 있는 반면, 지나친 숙청과 정치화는 지휘관의 독립적인 판단과 정확한 정보보고를 위축시켜 전쟁 수행능력의 잠재적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

대만 국방부의 『2026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가 제시하는 핵심 메시지는 중국군의 변화가 단순한 전력 증강을 넘어 전쟁 수행방식 자체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국방비 확대를 바탕으로 전통적 군종 전력을 현대화하는 동시에 AI·무인체계, 우주·사이버·전자전, CAISR 및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통합하고 있으며, 군사훈련과 해경 활동, 법률전·인지전·사이버 활동 등을 결합해 평시의 압박을 필요할 경우 군사적 강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만 위협은 단순한 상륙침공 가능성보다 회색지대 강압→봉쇄·격리→정밀타격→상륙작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적·복합적 전쟁수행 능력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이 중국군을 평가할 때 개별 무기체계의 수량을 넘어 합동작전·CAISR·우주·사이버·전자전·무인체계와 민군융합, 준군사력 및 전쟁 전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 시점 자체보다 평시의 군사적·비군사적 압박을 어떻게 전략적 우위로 축적하고 필요할 경우 군사작전으로 전환하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중국의 대만해협 전략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환경을 분석하는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따라서 한국의 대중국 안보 정책도 중국의 단순한 ‘군사력 증강’보다 ‘전쟁 전환능력’과 ‘복합적 강압 능력’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평시 경쟁에서 회색지대 강압, 봉쇄·격리, 제한적 군사작전, 전면전에 이르는 연속적인 위협 스펙트럼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